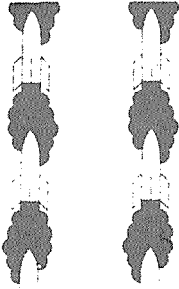


電子工業日誌



〈93. 10. 4~10. 30〉

10. 4 : 상공부, 정보처리업체 지원
기금을 신설키로 하고 구체적인
시험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
하고 경영애로자금과 기술개발자
금 등 두항목으로 지원 올해안에
5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
고.

10. 6 : 중진청, '89년 이후 중기구조
조정사업중 기술개발에 참여한
372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
한 「92년도 기술개발 기업경영실
태」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연간
매출액 신장률은 13.2%로 일반
중소업체 평균신장률 5.9%보다
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
고.

이들 372개사의 개발된 기술을
유형별로 보면 산업용 에어브레
이크 개발 등 신 제품이 195건
반도체 트리밍 등 제품제조기술
이 120건, 스텝핑 모터 드라이브
설계 등 부품설계 기술이 59건,
에시드 블랙개발 등 소재 개발이
48건 등으로 나타났다고.

10. 6 : 공진청, 우리나라와 경쟁국
인 대만의 수출검사 불합격률은
1.2%수준이고 일본은 1%미만인
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들 경쟁국
들보다 불합격률이 3배(3.3%)에
달하고 있어 대외경쟁력을 상실
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
다.

10. 8 : 상공부, 우대금리가 적용되
는 유망중소기업제도와 종합기술
지원에 관한 기술선진화제도를
통합해 운영키로 했다고.

10. 18 : 공진청, 시험검사제도가 최
근 국제무역의 기술적 장애요인
으로 등장하고 있어 국내 각종
시험검사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
이기 위해 각급 시험검사 기관을
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유도해 나
아가기로 했다고.

10. 18 : 체신부, 오는 '96년부터 기
업의 통신사업진입 조건이 대폭
완화된다. 이에 따라 일반기업은
물론 한국전력 등 통신사업 참여
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일부
정부투자기관들의 통신시장 진출
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.

10. 18 : 특허청, UR의 지적재산권협
상(TRIPS) 및 특허법 통일화조
약 타결에 대비 특허법 및 실용
신안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 특허
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고.

10. 19 : 공진청, 정부 및 각급 행정
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규격
을 한국산업규격(KS)으로 단일
화하는 정부규격 통일화작업이
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'8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추진된
규격 통일화는 총 1,016건에 달
하고 올해는 규격제정 160건, 개
정 400건 등 560건에 달할 전망
이라고.

10. 22 : 산업과학기술원, 동연구소와
포항공대 고온초전도 공동연구팀
은 고압의 수은가스 속에서 수
은·갈슘을 합성, 절대온도 130°
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새
로운 고온초전도체선재 개발에

성공, 개발의 성공한 고온초전도
체는 기존의 비스무트계 등 고온
초전도체와 제조방법 자체가 다
를 뿐 아니라 초전도온도가 10정
도 높고 환경조건에 따라서는 절
대온도 150°에서도 초전도 현상
을 나타내는 등 우수한 특성을
갖고 있다고.

10. 23 : 상공부, 전자정보산업 신규
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
위해 중기거점과제선정 등을 주
요골자로 한 전자정보산업 기술
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
마련 시행하기로 하고 확정된 중
기거점과제로 첨단영상의료시스
템, 정보처리 전략기술, 차세대
반도체용 핵심장비 및 재료기술,
디지털 캠코더, 멀티미디어 관련
시스템, 정보산업 표준화, 박막트
랜지스터, LCD 등 12개 과제로
'94년부터 본격 착수키로.

10. 25 : 산기협, 「'93산업기술백서」
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개발 수준
과 기술무역 실적을 밝혔는데 우
리나라의 기술개발력 수치는 미
국을 100으로 할 때 27.61로 일
본의 112.99, 독일 127.67, 프랑스
99.73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
고, GNP 대비 R&D 투자율도 선
진국의 2.6~2.8%에 비해 낮은 2.
02%에 머물고 있고 기업매출액
대비 R&D투자율도 1.69%로 선
진국 2.8~3.8%에 비해 현저한
격차를 보이고 있다고.

10. 28 : 과기처, S/W산업의 육성을
위해 2,000년까지 총 2,000억원을
투입하는 「소프트웨어 육성 국가
전략 기본계획」을 확정 했다고.

10. 30 : 상공부, 선진국에 비해 상대
적으로 취약한 주문형 반도체
(ASIC)등 비메모리분야 반도체
산업의 집중육성을 주내용으로
하는 반도체산업 육성안을 마련,